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4:8-13)

어린이 주일과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라서 감사하다. 내년도에는 절대 잊어 버리지 않고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불 말씀이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바울이 평생을 두고 낸 결론이다. 내게 능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있어.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일체를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것인가에 대하여 일체에 답을 얻었다는 그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리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다. 답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 답을 설명한 책이다. 때로는 말씀으로 원리로 이야기 하고때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 예로 설명했던 사람들이 시대적인 인물들이며 사도바울도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이니 답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주위에는 이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있다. 증인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더큰 인생 살게 될 것이다. 그냥 믿기만 해도 귀한 일이다. 만약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하면 작품인생이된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를 시작하고 있다. 이미 성경에 있었기에 새롭다고 강조하기는 그렇지만 현장에서 하지 않고 있기에 그렇다. 교회가 전도가 살아나면 모든 부분이 살아난다. 교회 뿐만이아니고 개인인생도 그렇다. 대개는 믿고 그냥 응답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속에서 전도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절대 두지 않으신다. 당연히 작품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전능하시기에 그렇다. 그리고 소원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이 들어와 누리면 기쁘고 감사하여 내 삶속에서 전도가 나타나 절대적인 작품이 나와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되는 것이다. 깊이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새로 시작한 전도가 팀사역전도이다. 팀 등록을 받았는데 8팀이 되었다. 중요한 팀들이기에 한달에 한번씩 이 팀들과 포럼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모임을 지난주에 했다. 한어권과 영어권과 나누어서 하였다.지금까지 일어난 현장 전도에 대하여 보고 포럼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것인가 참고가 되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에밀리 권사가 파나마 밀림에서 만난 어떤 제자에 대하여 말했다. 이분이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 상세하게 듣게 되었다. 한의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쿠바, 과테말라에도 있다고한다. 그러면 그림이 금방 나온다. 이런 나라들은 의료 불모지이다. 만일 그들중에 어느 한사람이 한의사가된다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의료 불모지 이니까 미국은 병원이 많기에 한의사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분들이 있는곳은 의료 황무지이기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분들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한의대 졸업을 시키는 것이다.제자로 키우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일본 한의대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다. 일본 한의대가 몇백개가 될것인데 이런 곳에 장학금을 줄수 있냐고 하면 몇 개가 나올까? 아무리 안나와도 10곳은 있을 것이다. 한의대로써도 의미 있는 일이기에 그렇다. 한의대 설립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겠는게 자기 법에 대한 비전이고 사상이니 그렇게 해서 교수도 만드는 것이다. 에밀리 권사가 미국의 어느 한의대를 졸업했을 것 아닌가? 그 학교가 이야기하여 내가 파나마 밀림에 이 학교 부설 한의대를 만들겠다. 쿠바 같은데는 파나마 밀림보다더 황무지 일 것이다. 과테말라는 조금 낫겠지만 찾아가면 더 짝찔을 것이다. 부설학교 만들어 확장할것인데 안할것인가? 학교 졸업시키고 가진 전문성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한의사로 의미있는 인생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권사님은 그들의 멘토가 되고 그들은 권사님의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 황무지에 슈바이처같은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중에는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 1000년의 응답. 슈바이처 모르는 사람 없잖는가 굉장한 메시지가 지금도 전달이되고 있다. 미국만 생각

하지 말고 가면 우리가 바로 선생님이된다. 자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있다고 남미 나라마다 제자를 찾겠다고 했다.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는가 그들이 무속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인데 팀사역 전도의 전형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한다.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다. 한국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부담스럽다. 그정도로 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답을 못 주니 가봐야 쓸데없는 일이라고한다. 이것을 깨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답난 사람은 생명을 걸게 되어있다 아닌 사람은 놀다 가도된다 괜찮다. 내가 답난 사람이 되어야지 왜 놀다 가겠는가? 그런데 미국에도 의료 황무지가 있다. 현대 의료로는 손대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영적문제, 중독문제 어느 병원이 이일에 손을 대는가 무슨 약이 있는가? 감옥을 둘러가려는데, 그래서 감옥 전도도 중요하다. 답이 없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그 사람들 중에 세상을 원망하여 독이 가득찬 사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나는 잘못었고 세상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중에서 나는 왜 이런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가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들 수 밖에 없다. 몇팀이 양로병원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팀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들도 의료 황무지속에 있는 것이다. 병원에 있는데도, 죽어가도 있다. 사람이 시간을 다하여 죽는데 병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가? 의료 황무지이다. 죽음이 다가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의료 황무지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는가 네가 이 땅에서 최고다. 병원이 있어도 약이 많이있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 현장을 찾아야 한다. 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 판인지 사단에게 속아서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나,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줘도 잊어버려 그대놓고 응답만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복음이 아니면 꼼짝을 못하는 것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다. 몇 번 실패해버리면 낙심해서 무너진다. 그들에게 너 이유를 아냐 지금 죽어가는 자, 문제를 뻔히 보고도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자, 특별히 영적문제 걸려서 알면서도 답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번에 포럼을 하면서 237치유 서밋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은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2부예배 등록한 자들은 다 오기를 바란다. 관심있는 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뀐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증거가 성경이다. 힘쓰고 노력을 해도 3일만 하면 끝나버린다. 다시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불 말씀이다.

1.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유명한 성경구절이다. 사도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능력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면 다 할수 있다는 바울 자신의 평생 언약이다. 그 이후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상황이 어떤것이라도 나는 만족한다. 12절에는 좀더 상세하게 나는 비천에 처할줄도 풍부에 처할줄안다.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줄 안다. 이런 것을 다 체득을 했다. 바울이 수많은 현장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를 통과하면서 나온 결과이다. 그 모든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했을 것이다.이제는 누가 나를 비참하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런 것을 누가 내게 모욕을 줘도 이제 상관없다. 수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비난해도 이제는 아무 영향 내게 없다, 분명히 당연히 나를 칭찬을 해도 내가 교만하여 내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배불러도 배고파도 괜찮다. 나는 세상 모든 것에 일체

에 비결을 배웠고 정리했다.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체득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답났고 결정했다. 그 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정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 안봐, 오직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정했다. 그렇기에 나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안해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와 이 복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걸꺼야!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일체의 답을 정리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고볼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사건도 일어나고 배신자도 일어나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바깥으로 보면 엉망진창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아니 인간이 뭐그래...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다. 그냥 한번 둘러 보시라 맞지 않은가? 막 엉망진창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갈수 있는가 싶다.그러나 그런 중에도 나는 상관없이 이 길을 갈 것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세상이라 초월하는 답이 나고 정리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 대부분은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에 잡혀서 중단을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할 이유가 없다. 롤러 코스타는 그게 본래 정상이다. 세상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다.안그런적이 없었다. 어느 역사이고 그랬다.여기에 대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답나고 정리 끝났다.더 이상 질문도 없다 끝, 우리는 상관없이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이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작품이 나온다.사도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가 매를 39대를 4번을 맞았다. 수시로 배고프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대접을 받는가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왜 이따위 소리를 해라고 ... 이 일을 그만 돌려고 하면 수백번 그랬을것인데 그런데 사도바울은 필요없어 답났다. 이것이 사도바울을 존경하는이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안되면 표본에서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답이 난자

답나야 이리 되겠다.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가는 답이 날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말이 달라져버렸다.전에는 안된다고 했으나 이제는 이것이면 된다고 하였다. 내 생각도 달라지고 당연히 응답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또한번 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다.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수있을 것이다.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참증인이다.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답난자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나는 네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자량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가 행한대로 나를 따라오면 네 인생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은 보았다는 말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지속적인 증거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 까지 갔으니 이런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 믿기만, 가지기만 아니고 답을 낸 사람이되면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 전도현장에서 이것이면 된다는 사람이 증인이다. 사도바울은 참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고전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말은 사도바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누가

무슨소리를 해도 아무 필요없다. 그냥 그리스도의 인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약을 누리므로 개인적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을 계속 보는 것이다.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날 시간표가 와서 내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면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아 내가 하나님의 비밀 약속의 피를 가진자구나. 어느날 시간표가 되어서 자기를 향한 눈이 열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다 필요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동으로 작품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빌4:6 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간구로 너희 구할 것 을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 실것이라고 하셨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에 문제가 온다. 응답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응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올해는 기도하는 해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이런 기도하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복음을 누리는 자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인데 그 출발이 복음을 누리는것이고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된다. 예외는 없다 복음을 누리는 데도 응답과 증거가 없을 수없다. 혹 있다해도 과정이다 낙심하지 말라 답이 이것뿐이기에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응답과 증거를 계속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방법이나 길을 알게 된다.원리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다. 사도바울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라. 진짜 시작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이다. 전에는 학자이지만 이런 소리르 못했다. 복음을 알고난 이후부터 복음을 알고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런 과정을 지난후에 이런말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세상에 대하여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무슨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절대 엎길 가지 않아 땅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저기 보지 않고 그길을 가고 끝낼 것이다. 복음을 아는 근본위에 삶의 비결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근본도 알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았다는 그말이다. 진짜 답을 가진자이다. 근본언약을 딱 알고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지 답을 알고 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해 그래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당할 이유는 없다. 뱀처럼 지혜롭게 일체의 비밀 우리가 잡아야 할 두가지 이유이다. 그것도 복음의눈으로 정리해놓은 일체의 비결이다. 세상경험으로 일체의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습겠지만 사도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며 그대로 하라고 하신다. 복음의 눈으로 정리된 일체의 비밀.

그래서 결론 냈다. 아 상관없이가야 한다.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는 끝가지 못간다. 오직 하나로 끝내야 한다. 다른것으로는 작품 안되는 구나. 이렇게 해서 사도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자가 되었다. 그리고 진짜 정리되고 확신하고 확인했기에 사람들에게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말했고 내게 듣고 본바를 행하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나와함께 하리라 이것이 사도바울의 메시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세상 살릴 비밀을 가진자. 땅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정리했다 대단한 메시지이다. 간단한 메시지만데 자기 평생의 증거를 토해냈다. 우리도 다 이리되어야 한다. 일체의 비밀을 가진자. 세상을 초월한 전도자 땅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잡히지 않는 전도자 결국은 끝까지 가고 결국 작품을 만드는 전도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